

# SENIOR조선

MAY  
2013  
VOL.13

인생을 품격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http://senior.chosun.com)

Come Inside

남자여, 앞치마를 둘러라  
왜 그들은 AARP에 열광하는가







# REMINDE HONEYMOON

〈시니어조선〉· 캐나다관광청과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 그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

“나중에 더 근사한 곳으로 신혼여행 다시 가자.”

신혼 첫날밤 신부에게 이런 약속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내와의 첫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내신 건 아닌가요.  
이즈음 다시 떠나는 허니문을 통해 당시의 설렘을 추억하고,  
두 사람이 함께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이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합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미항 도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더없이 경이로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리한 온타리오주에서 즐기는 **리마인드 허니문!**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커플에게  
각각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b>대상</b>	만 44세 이상의 건강한 심신을 지닌 한국 국적의 부부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b>신청 방법</b>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a href="http://senior.chosun.com/event">http://senior.chosun.com/event</a> )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a href="mailto:honeymoontocanada@gmail.com">honeymoontocanada@gmail.com</a> 으로 송부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구관 3층 시니어조선 (우 100-756) (우편물 하단에 '리마인드 허니문 응모' 표기 요망)
<b>일정</b>	<b>1차 브리티시컬럼비아주</b> 신청기간 2013년 4월 1일 ~ 5월 5일 당첨자 발표 2013년 5월 15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허니문 일정 2013년 6월 3일 ~ 6월 9일 <b>2차 온타리오주</b> 신청기간 2013년 6월 1일 ~ 7월 5일 당첨자 발표 2013년 7월 15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허니문 일정 2013년 8월 3일 ~ 8월 9일
<b>지원내역</b>	캐나다관광청에서 왕복항공권, 호텔, 식사 및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가는 〈시니어조선〉에 게재됩니다.
<b>기타사항</b>	응모 사연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작의 지적재산권은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에 귀속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자정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b>협찬</b>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관광청 ( <a href="http://www.hellobc.co.kr">www.hellobc.co.kr</a> ), 온타리오주 관광청 ( <a href="http://www.ontariotravel.net/kr">www.ontariotravel.net/kr</a> )	





# inside

VOL.13 MAY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 06 FAMILY 남자여, 앞치마를 둘러라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가족 관계 구축을 위해 평소 노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미션으로 요리는 어떨까.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가족 감동시키기.

## 10 PEOPLE 파아제 코리아 살방 코스토프 지사장

미술품 감상이 취미인 살방 코스토프 지사장은 땀이 날 때마다 사무실 근처 갤러리를 즐겨 찾는다. 국내 작가의 작품에도 관심이 많은 그에게서 미술 애호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 듣는다.

## 12 THIS MAN 치과 의사 뮤지션 리안

의사와 가수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두 가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는 이 남자. 치과 의사 백승연, 그리고 그의 다른 이름 뮤지션 리안에 대해.

## 13 THE AUTO SUV를 타고 떠나자!

오토캠핑이 대세다. 험한 길을 거뜬히 달릴뿐더러 이리저리 캠핑 도구를 잔뜩 싣고도 쾌적한 공간이 확보되는 SUV를 눈여겨보자.

## 14 LOOK 자연을 담은 멋쟁이!

중년 남성들의 영원한 워너비, 아웃도어 의류. 잘 고른 등산복 한 벌만으로도 충분히 멋쟁이가 될 수 있다.

## 16 THIS CAR K9과 떠나는 예술건축 기행①

기아차의 프리미엄 세단 K9은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예술건축 기행에 나선다. 그 첫 번째 행선지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K9의 진면목을 살펴보자.

## 18 INDUSTRY 왜 그들은 AARP에 열광하는가?

세계 최대 규모 은퇴자 커뮤니티인 AARP. 전 세계 시니어 관련 기업들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꼽는 이곳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 21 FINANCE 내 자산관리 점수는 몇 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면 보다 풍요로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해해보자. 은퇴 준비가 한결 쉬워진다.

## 22 MONEY 수익형 부동산 투자, 현명하게!

은퇴 후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수익만 한 효자가 있을까. 바로 수익형 부동산 얘기다. 어떻게 투자하는 게 현명할까.

## 23 BULLETIN 이달의 소식

5월 부터 한진관광에서는 나트랑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고, 한가미술관에서는 김환기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기획했다. 이들에 체크해야 할 알찬 정보들.

###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ok49@naver.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다자인  
미술교정 정선희 sunny2420@naver.com  
교열 최귀열 gwiyeol61@hanmail.net

###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 BRAND MARKETING & PLANNING

팀장 정하나 hana@chosun.com

###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itlira@chosun.com

###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출력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번 호는 내부 사정으로 넷째 주 화요일에 발행 · 배포되었습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탭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셰프메이드 Dining으로,  
잊을 수 없는 만족이 되다



Taste the Variety of Live Cooking



쿠치나렘 / 라이브 쿠킹  
최고의 Chef가 선사하는 Live Cooking에서  
간접연 다이닝을 선호하는 Organic F&B에서는  
다채로운 요리와 함께 특별한 만찬을  
경험해 보세요



죽림



일라코



THE MVL  
KINTEX



# FAMILY

## 가족 소통 프로젝트 남자여, 앞치마를 둘러라

‘가족’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있을까. 행복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가족의 정’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삶을 꿈꾼다면 관계 구축을 위해 평소에 노력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낯설어지고, 쓸쓸해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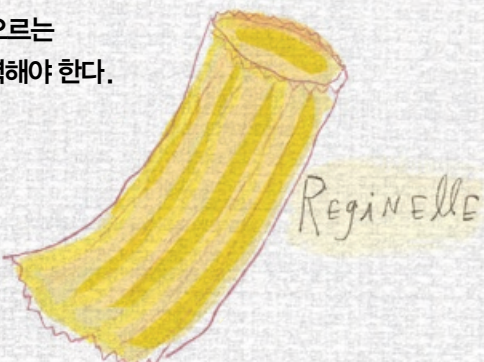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베이비부머, 은퇴, 고령화다. 요컨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으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현상을 짚어내느라 바쁘다. 보도 기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단연 재무 관련 내용이다. 서울특별시재단이 지난해 가을 55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은퇴 연령은 52.6세였다. 하지만 그보다 일찍 퇴직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해 보유 자산이 평균 4억 원(부동산 포함) 정도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5~8년 정도 공백이 생긴다고. 그야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틀림없다. 그러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이 어디 ‘돈’뿐이겠는가. 노후 자금 마련에만 급급하다 퇴직 이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바로 ‘외로운 중년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종종 아버지라는 인물은 평생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했지만 은퇴 이후 돌아온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압박하게 대하는 것일까. 아니다. 진작부터 ‘소외된 가장’이었지만 업무로 바쁠 때에는 그것을 인지 못하다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은 별개

1955~1963년생. 나이로는 51~59세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는 근대화 시기에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라고 일컬어진다. 개인이 성공해야 가족이 성공하고, 가족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달려온 세대다. 그렇다 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가족 관계나 친구 등과의 사회 관계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답변은 어땠을까. 2012년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가 베이비부머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할 수 없다는 비율은 28.4%인 반면 희생할 수 있다는 비율이 34.3%, 중간적인 입장이 37.3%에 달했다. 가족을 우선 순위에선 경우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적 우려와 달리 은퇴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그래프 참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은퇴 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저서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이와우)에 50대 베이비부머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된 750명의 전화번호부를 보고 이들과의 소시오메트리(sociometry, 즉 관계의 성격과 친밀도를 분석한 내용)가 나온다. 그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구분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망, 학교나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친밀 관계망, 업무나 모임을 통해 친교를 갖게 된 사람들로 개인적인 얘기를 스스럼없이 나눌 수는 없지만 술자리, 여행, 운동, 공적 방문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근 관계망. 그리고 거의 타인에 가까운 사람들로 이해

당사자로 만나는 공적 관계망이 그것이다.

“가족 관계망은 사회 관계망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육체적 에너지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공급받는 곳이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것이기에 마치 자기 방에서 옷통을 벗고 날브러져 있듯이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관리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온 퇴직자는 가족 관계망이 이토록 망가졌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새로운 고녀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송호근 교수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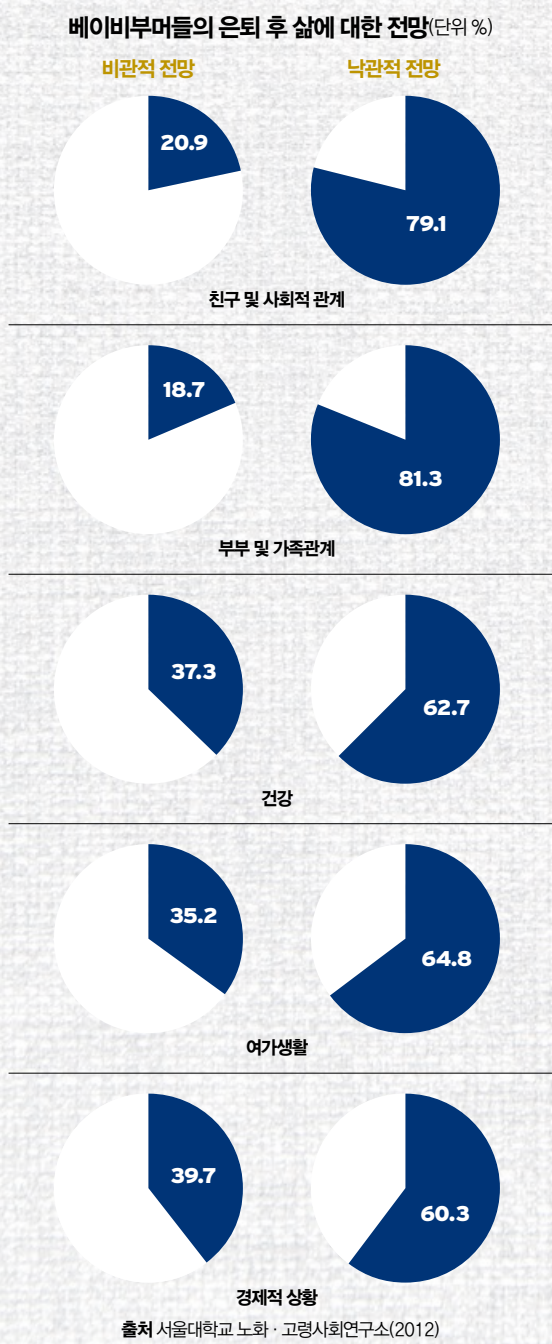
### 요리는 사랑의 에너지를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

사회적으로 연결된 관계와 달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끈끈한 감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남편, 아버지라 하더라도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서 고립되어 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은퇴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 구축하려 하면 늦다. 만약 소홀했다면 지금부터 가족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아내의 보살핌만 받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아내의 건강은 어떤지 챙기는 관심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묻고, 친구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마음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다가가 말 걸기 쉬운 수단 중 하나는 요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음식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정성과 사랑의 에너지를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다. 그러나 망설이지 말고 앞치마를 둘러라. 요리 솜씨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치 않다. 감기 걸린 아내가 마음 쓰여도 살갑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흰죽이라도 끓여서 내밀어보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따금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어린 자녀라면 아버지와와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여는 데에는 진지한 훈계나 꾸지람보다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간접적인 방식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요리책을 구입하거나 인터넷에서 음식 만드는 법을 검색해 레시피를 다운로드하자. 가족들에게 더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 요리 학원에 등록, 제대로 배워보는 것은 어떨는지.



### INTERVIEW

#### 더 보오메 꾸뜨르 김성룡 회장 음식을 통해 가족과 소통한다

1956년생 김성룡 회장. 그는 1970~1980년대 대표 수출품인 섬유 사업을 하며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 역군으로 일했다. 이후 2000년대 섬유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사업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부티크 호텔인 ‘더 보오메 꾸뜨르’를 오픈했다. 말하자면, 김 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처럼 아이들이 한창 자라나는 때에 사업은 정신없이 바빴고, 해외 출장도 잦았다. 그러나 그는 세 자녀에게 ‘늘 비싸서 존재감 없는 아버지’로 기억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자녀를 잇는 매개체는 음식이었다.

**Q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바지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부모님이 북한 분이어서 남한에 친척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형제라고는 12살 터울의 누님뿐이었는데, 누님의 출가 이후에는 혼자 자란 것과 다름없어 무척 외로웠다. 그러다보니 가족애가 남보다 강했던 듯하다. 결혼 후 2녀1남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일일교사도 하는 등 ‘열혈 아빠’였다. 대학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두 딸이 학교 수업 외에 입시 레슨을 받으러 갈 때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자청했다.

**Q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특히 사춘기에는 부모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한 후에는 부모의 관심을 오히려 싫어하기도 하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아이들을 대하려고 해도 세대 차이가 나기 마련이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가족은 서로 부대끼고 다투기도 하면서 정이 든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낸 덕분에 두 딸이 모두 출가했음에도 이만저만 살갑게 하는 게 아니다. 가끔 일요일 오전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려고 왔다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무척 흐뭇하다.  
**Q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진 비법은 무엇인가.** 요리다. 섬유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 새로운 소재나 트렌드 분석을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출장이 잦았다. 그렇다보니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이탈리아 요리, 프렌치 요리를 맛볼 기회가 많았다. 가족들에게도 그 맛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치즈나 드레싱 같은 것을 사와서 가족들에게 자주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손맛이 있는 편인지 제법 비슷하게 흉내를 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철칙이 있다. 김정은 꼭 가족이 함께 담근다는 것이다. 김장날 외부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겨우내 김치를 먹으면서 온 가족이 김장을 담그던 날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가족을 위해 차린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딸이 시집가기 전 함들이 하는 날 차린 음식이다. 한식은 잘못하지만 샐러드, 애플타이저 같은 간단한 서양 요리 위주의 파티당은 곧잘 차리는 편이어서 정성껏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난다. 사위 친구들도 내가 차렸다고 하니 많이 놀라워했다.

**Q 아내를 위해서도 음식을 자주 만들어 주는 편인가.** 두 딸은 출가하고 막내아들은 군에 입대해서 부부만 있다보니 아내에 대한 정이 더욱 각별해지는 것 같다. 그 전에는 아이들 신경 쓰느라 서로 챙기지 못했는데, 요즘엔 부부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최근에는 아내가 갱년기로 힘들어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가끔 와인 안주를 챙겨서 식탁에 차려놓고 아내를 부엌으로 초대한다. 둘 다 술이 약한 편이라 많이 마시진 못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부부애를 나누는 게 좋다.

**Q 인생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을 잘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부부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가정을 제대로 가꾸어갈 수 없고, 끝까지 지키기도 쉽지 않다. 사업이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가정을 잘 이끌어온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회복한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푸드 스타일리스트 노영희 추천

## 요리 솜씨 없이도 가능하다! 마음을 전하는 데 제격인 음식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어디 말뿐이겠는가. 음식을 통한 작은 행동 하나로 아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먼저 다가가는 몸짓을 건넬으로써 자녀와의 사이에 철옹성같이 버티고 서 있는 벽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음식을 제안한다. 물론, 솜씨가 없어도 가능한 것은 기본. 레시피대로 차근히 따라 하면 어느새 완성될 것이다.

### 감기 걸린 아내에게 '묵초'

아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도통 무심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지사.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려 '고작 감기 갖고 뭘 그리냐는 시큰둥한 반응에 아내들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 몸살로 몸이 으슬으슬할 때면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만들기 쉬운 '묵초'로 감기 걸린 아내의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것은 어떨는지.

#### 재료(4인분)

청포묵 200g, 쇠고기 50g, 표고버섯 30g, 새송이버섯 50g, 미나리 20g, 쪽파 2뿌리, 양념(국간장 2작은술, 설탕 1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다진 파 ½큰술, 후춧가루·참기름 약간), 국물(쇠고기 육수 2컵, 고운 소금 약간)

#### 만들기

**1** 청포묵은 가로세로 2cm, 두께 7mm 크기로 썬다. **2** 쇠고기는 3cm 길이로 납작하게 썬 후 분량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재워둔다. **3** 표고 버섯과 새송이버섯은 얇고 납작하게 썬다. **4** 미나리와 쪽파는 다듬어 씻어서 2cm 길이로 썬다. **5** 냄비에 국물을 붓고 끓으면 쇠고기와 표고버섯을 넣고 다시 한 번 한소끔 끓인다. 거품을 걷어내고 청포묵, 새송이버섯, 쪽파, 미나리를 넣고 끓인 후 그릇에 담는다.

### 군입대 또는 유학 가는 자녀에게 '김치말이밥'

군입대, 유학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공유할 추억거리가 많다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이 더해지는 법. 한국인에게 김치는 고향 그 자체이다. 특히 '엄마가 담근 김치'는 가족 생각, 집 생각을 할 때면 떠오르는 맛일 터. 함께 김치말이밥을 만들면서 가족애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 재료

잔멸치 50g, 조림 양념(진간장 1큰술, 조미술 2큰술, 청주 1큰술, 후춧가루 약간, 꿀 1큰술), 밥 2공기(350g), 참기름 1작은술, 통깨 ½큰술, 김치 3~4줄기, 김치 양념(설탕 ½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통깨 ½작은술, 송송 썬 쪽파 약간)

#### 만들기

**1** 잔멸치는 지저분한 것을 골라내어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볶는다. **2** 분량의 조림 양념을 팬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①을 넣고 국물이 없게 조린다. **3** 밥에 멸치 조린 것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섞는다. **4** 김치는 속을 털어내고 국물을 잔 후 분량의 김치 양념을 넣고 무친다. **5** 김치를 가지런히 놓고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6** ③의 밥 적당량을 원통형으로 뭉쳐 김치에 놓고 돌돌 만든다.



### 갱년기 아내에게 '쇠고기생채'

갱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호르몬 변화로 열이 많아져 더위를 심하게 타고... 무엇보다 상실감과 함께 밀려오는 우울증 때문에 중년 여성으로서 심한 앓이를 하게 된다. 때로는 입맛 살려주는 음식이 울적한 기분을 달래주기도 한다. 아내의 침체된 기분을 살려주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쇠고기를 활용한 산뜻한 냉채에 도전해보자.

#### 재료(4인분)

얇게 썬 쇠고기 200g, 화이트와인 1컵, 물 1컵, 무 50g, 오이 50g, 무순 약간, 가지 1개, 소스(진간장 1½큰술, 식초 1½큰술, 설탕 1큰술, 연겨자 2작은술, 다진 대파 1큰술, 참기름 ½큰술)

#### 만들기

**1** 무와 오이는 채 썰고, 무순은 찬물에 행구 건진다. **2** 냄비에 화이트와인과 물을 붓고 끓인다. **3** ②가 끓으면 쇠고기를 한 장씩 넣고 데쳐서 체에 발쳐 놓는다. **4** 가지는 4cm 길이로 토막 내서 길이로 4등분한 다음 튀겨 건진다. **5** 분량의 재료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6** 접시에 튀긴 가지를 담고 위에 쇠고기와 채소를 얹은 다음 소스를 끼얹는다.

### 대화가 부족한 사춘기 자녀와 친해지려면 '돼지고구이를 곁들인 쌀국수'

외식할 때 자녀의 식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요리를 만들면서 그들의 식성을 고려하지 않고 메뉴를 선정하면 자녀가 아버지와 거리감을 더 느끼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을까. 젊은 층이 좋아하는 쌀국수를 추천한다. 돼지고기 굽는 역할은 자녀에게 맡기면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재료(4인분)

돼지고기 목살이나 항정살 400g, 꿀 4작은술, 설탕 1큰술, 후춧가루 약간, 액젓 1½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곱게 다진 양파 2큰술, 삶은 쌀국수 400g, 상추 40g, 양상추 60g, 깻잎 10장, 무·당근 약간, 초절임 양념(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소금 1½작은술), 숙주 40g, 민트·바질 적당량, 소스(라임즙 4큰술, 액젓 3큰술, 물 3큰술, 설탕 4큰술, 다, 마늘 1작은술, 빨간 고추 다진 것 4작은술)

#### 만들기

**1** 돼지고기는 3mm 정도 두께로 포를 뜬다. 꿀, 설탕, 후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액젓, 다진마늘, 다진 양파를 넣고 무쳐서 10분 정도 재워둔다. **2** 쌀국수는 끓는 물에 담갔다 건져 찬물에 행구 건진다. **3** 상추, 양상추, 깻잎은 5mm 폭으로 채 썬다. **4** 무와 당근은 채 썰어서 초절임 양념에 버무린다. **5** 숙주, 민트, 바질은 씻어서 물기를 뺀다. **6** ①을 식혀서 굵거나 팬을 달궈서 굽는다. **7** 분량의 소스 재료를 섞는다. **8** 접시에 구운 고기, 국수, 채소를 섞어서 얹고 소스를 뿌린다.



### 가족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새우크림소스파게티'

축하할 때에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닌 뭔가 특별한 요리가 좋다. 이때 작은 수고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 메뉴는 파스타. 조리법이 간단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좀 더 성의를 보이고 싶다면 새우크림소스파게티를 시도해볼 것을 권한다. 큼직한 새우와 크림소스가 어우러진 파스타는 풍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줄 것이다.

#### 재료(4인분)

파스타면 200g, 소금 1큰술, 새우 중간 크기 12마리 또는 대하 6마리, 새우국물(새우 머리와 껍데기, 올리브오일 1큰술, 화이트와인 ½컵, 물 ½컵), 소스(양파 ¼개 다진 것, 다진 마늘 1큰술, 올리브오일 2큰술, 토마토 페이스트 3큰술, 생크림 2컵, 소금·후춧가루 약간)

#### 만들기

**1** 새우는 등 두 번째 마디에 꼬치를 넣어서 내장을 빼낸다. 머리를 떼고 껍데기를 벗기고 반으로 저며 썬다. **2**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새우 머리와 껍데기를 볶다가 빨갈게 변하면 화이트와인을 붓는다. 한 번 끓고 나면 물을 붓고 국물이 ½컵 정도 나오게 조린다. **3** 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다진 마늘과 다진 양파를 넣고 말갈게 될 때까지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5분 정도 볶는다. **4** ③에 ②와 생크림을 붓고 중간 불로 4분 정도 끓인 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5** ④에 새우를 넣고 새우가 빨갈게 익을 정도로 다시 끓인다. **6** 물 3리터에 소금 1큰술을 넣고 끓으면 파스타면을 삶는다. 알덴테(심이 약간 남을 정도로 삶아서 체에 쏘아 물기를 뺀다. **7** ⑤에 ⑥을 넣고 버무린 후 그릇에 담는다.

OD Musical Company and CJ E&M present

# 브로드웨이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뮤지컬!



## 뮤지컬 스팸어랏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서영주 정준하 이영미 신의정 정상훈 조형균 윤영석 고은성 이훈진 김 호 정철호 공민섭 박경동 윤민우 정성진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SPAM LOUNGE 후원 K1111 예술경영지원센터 인터파크 오픈리뷰 옥션 에스24 두산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from the original screenplay by Graham Chapman, John Cleese, Terry Gilliam, Eric Idle, Terry Jones, Michael Palin



# PEOPLE

## 피아제 코리아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 미술 애호가로 사는 즐거움

나만의 즐길거리, 즉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삶을 즐기는 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취미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답변이 공색해지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살이 5년차에 접어든 피아제 코리아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은 미술품 감상이 취미.  
국내 작가의 이름을 언급하며, 짝이 나면 사무실 근처 갤러리를 자주 찾는다는 그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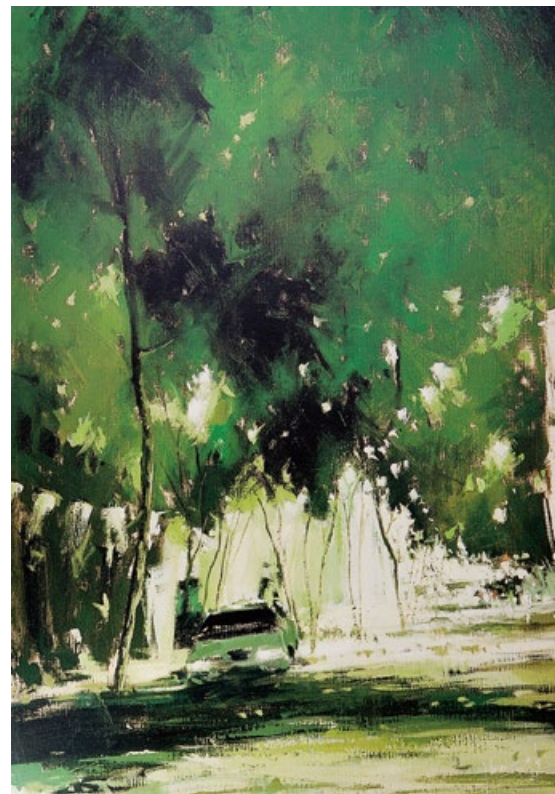
촬영을 위해 찾은 곳은 환기 미술관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수화 김환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는 주제로 김환기의 시대별 작품을 전시 중이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를 좋아한다는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 그는 수화 김환기의 색감에 반하고 말았다.

촬영팀 조원 / 미술관(02-391-7701)

“예술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 대상으로 변형해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존경한다.”



유근택 '분수 Fountain', 179x180cm, 종이에 수묵채색, 2009



김성호 '도시 City', 72.7x50cm, oil on canvas, 1998

피아제 코리아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은 2009년 11월 한국에 부임, 올해로 서울살이 5년차에 접어들었다. 한국인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그는 이전부터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고. 평소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피아제 코리아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14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최상급 워치 메이커 피아제의 가치를 알리는 데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한국에서 피아제 지사장으로 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근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순수예술 속에서 찾았다. 그렇지만 고도자본주의사회가 된 현대에는 예술 품만이 아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에서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명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과시욕이 나 허영으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단순한 생산 공정이 아닌 예술의 경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계 명장들이 작은 나사 하나까지 수공으로 만들어 완성하는 피아제 또한 21세기 신개념에서 본다면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 이러한 예술적인 상품을 만드는 피아제의 실방 코스토프 한국 지사장은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예술적 안목이 높은 편이며, 미술 애호가이기도 하다.

“도시 자체가 거대 뮤지엄인 파리에서 사는 행운을 얻게 되면 자연스레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화가이자 미술품 컬렉터여서 어려서부터 그림에 둘러싸여 살았다고. 이렇게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는 그림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대 중반.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과 같은 네덜란드 화가 작품에 매료되면서 부터다. “이전에는 영화와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새로운 예술을 만난 것이다. 그림을 즐겨보다 보니 모네, 드가, 모딜리아니 등 그 폭이 점차 넓어졌다. 인상주의, 사실주의와 같은 미술 사조의 흐름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게 이만저만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현대 미술은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미술관과 갤러리를 찾아다니던 지 15년 즈음 지나서야 현대 미술의 미감을 읽어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의 마음속에는 쉽게 잊지 못하는 첫사랑 같은 작가가 있다. 프랑스 미술가 도미니크 폴레스(Dominique Polle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6여 년 전 그의 작품을 처음 본 이후 한 눈에 반했으나 당시 30대 직장인이었던 그가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그래서 도미니크 폴레스의 작품을 감상하러 문턱이 닳도록 갤러리를 드나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와의 간격을 좁히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젊은 시절에 비해 재정적 여유가 생긴 지금은 작가의 명성도 예전보다 높아져 작품 가격이 20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에 다소 낯선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취한 다양한 동작을 볼륨감과 역동성을 살려 표현한 조각물로 유명하다. 도미니크 폴레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그에게서 작가에 대한 무한 애정이 느껴진다.

### 보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내면의 생각을 시각적 대상물, 즉 예술작품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미술품 감상은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풀어내는 지 보고 느끼는 것이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무엇일지 상상하고 또한 작품을 보며 드는 느낌을 통해 인터랙션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 이 다소 걸렸다. 예전에는 단순히 보는 것만 즐길 뿐 작품과 나를 잇는 다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젠 어느 정도 작품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실, 미술품을 감상하며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그보다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처럼 작품을 대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 변화를 느껴보라. 동일한 작품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는 것은 보는 사람의 감정과 상상력이 작품에 더해지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따지면 보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작가 도미니크 폴레스 외에도 그가 좋아하는 작가는 많다. 그 가운데 한국 작가의 비중도 큰 편. “미술품 2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작품을 구입하면 늘 가까이 두고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미술품의 매력인 듯하다. 특히 한국 작가의 작품에도 관심이 많아 몇 점 소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유근택의 '분수'는 한지에 그린 수묵채색화인데 유화와는 다른 한국적 느낌이 무척 좋았다. 솟구쳐 오르는 분수의 물줄기와 뒤에 있는 나무의 컴포지션도 인상적이고, 김성호의 '도시'라는 작품은 색상이 환상적이다. 신록이 울창한 나무 아래로 달려가는 자동차 뒷모습을 그린 화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백운기의 조각품 '말'은 순수한 느낌을 주는 형태가 마음에 들었다.”

메이저리거로서 미국 야구에 데뷔한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뛰어난 자작곡 능력으로 장안의 화제가 된 14세, 17세 어린 남매로 구성된 '악동 뮤지션'도 오디션 프로그램 최종 결선 무대에 임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경기를 무대를) 즐기겠다”라고. 부담감과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지 않고 과정 속에서도 의미를 찾겠다는 뜻일 게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스트레스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취미 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미술애호가 실방 코스토프 지사장처럼 말이다.



백운기, '말', 150x24x70.5cm, bronze, 2010



# THIS MAN

##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는 이빨쟁이 치과의사 뮤지션 리안

노래 잘하는 의사 혹은 환자를 치료하는 가수?

본업이 뭐냐는 질문 같은 건 그제겐 그저 촌스러운 얘기일 뿐이다.

의사와 가수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두 가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는 이 남자.

치과의사 백승엽, 그리고 밴드 '이빨스'의 보컬리스트 리안에 대해.

리안(백승엽/46)은 서울 중랑구에서 개인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치과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2005년부터는 치과의사 밴드 '이빨스'의 리더 겸 보컬로 활동하고 있다. '이빨쟁이', '현달에 한번, 루씨' 등의 곡이 수록된 세 장의 밴드 음반과 두 장의 솔로 음반을 발매했다. 현재 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조인트 무대에서 중형무진 활약 중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펑크록 밴드

'이빨스'에서 리더 겸 보컬을 맡고 있는 리

안입니다. 본명은 백승엽. 1999

년부터 개인치과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빨스** 이빨스는 2005

년에 결성됐습니다. 총

세 장의 음반을 발매했

죠. 음반에 수록된 곡은 모

두 자작곡이고요, '이빨쟁이'

, '후라이드치킨' 등 발표된 곡

만 20곡이 넘습니다. 2010년

부터는 솔로로도 활동하고 있

어요. 이빨스가 펑크록 같은 하드

한 음악을 추구한다면 솔로 가수 리

안은 발라드 같은 보다 대중적인 음악

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죠. 아직 저는 세상

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가수이지만 언젠가는 사이처럼 월드스타가 될 겁니

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화부장관이 되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웃음).

**중학교 3학년**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건 중학생 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

시고 집안이 어려워져 방황하던 중 3패 친구를 따라 밴드연습실에 놀러 갔다

그만 거기에 폭 빠지게 됐어요. 당시 한 줄기 빛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니다. 어린

마음에 당시 상황을 비관하기도 했는데 음악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고,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이 뮤지션

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치대생 VS 가수지망생** 당연히 음대에 진학하고 싶었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 치대에 가라고 설득하시는 바람에... 작곡가 길옥윤 선생도 서울대 치대

출신이라는 얘기에 솔깃했었어요. 막연히 서울대 치대에 가면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만

만치 않았습니니다. 당시 제 헤어스타일이 장발이었는데, 교수님에게 불려가

머리칼을 잘린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당하지 않았던 일인데요(웃음).

그만큼 당시 학과 분위기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악을 포기할 수

는 없었죠. 대학교가제 같은 경연대회에도 출전하고, 데모곡을 만들어 기획

사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획사에서 돌아온 답은 "학교 그만

두고 음악에 전념할 수 있니?" 하는 물음이었어요. 치대생이라는 타이틀이 저

를 포장하는 데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

별한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여태껏 몇 년간 공부한 게 아깝더라고요.

학과 공부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차례로 마쳤죠. 군대에도 다녀오고요.

그러다보니 서른이 훌쩍 넘었고 기획사에서는 나이가 많다면 저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렇게 데뷔가 좌절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물

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중에도 곡을 만드는 일은 멈추지 않았죠.

**3명의 이빨쟁이** 1993년에 의사 면허를 따고, 1999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의사

로 일하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어느 순간 굳이 기획사를 거치지 않아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2005년, 부리나케 멤버를 몰색해 팀을

만들었죠. 4명의 치과의사가 모여 '이빨스'를 결성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신

과 의사 표진인 씨가 객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멤버가 3명이에요. 기타 치는 김재홍 씨는 대학동기, 드럼 치는 홍윤

기 씨는 대학선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 연습을 하고, 단독 콘서

트나 조인트 공연 무대에 오르는 등 나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펑크록

을 지향하는 이빨스지만 작년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보려 하고 있어요. '뽕

짝뽕 째뽕락 밴드'라고나 할까요. '뽕짝' 느낌이 물씬 나는 곡도 몇 곡 작곡해

두었습니다. 음악적 편식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양한 시도 자체가 곧

우리 밴드의 색깔이라 할 수 있죠.

**원장 나오라 그래!** 뮤지션, 그리고 치과의사로서의 생활을 병

행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의료란 정해진 답이 있는 일이죠.

100%를 다 하면 분명 답이 나오니까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 음악은 끝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도전해야 하니까. 그러니 두 가지 일은 상호보완적이

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창작의 고통으로 들끓었던

머리와 가슴이 낮에 누군가를 치료해내는 순간 편

안해지기도 하죠. 앞으로도 가능한 한 두 가지 일

을 병행할 생각이에요. 그러다 후 문화부장관이

되는 순간 병원 일은 그만둬야겠지만(웃음).

물론 억울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치과의

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하는 음악을 진

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리 열정을 담아 곡을 만들어도 그 가치는

평가절하되곤 하죠. 병원홍보를 하려고 뛰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별

수 없죠. 계속 노력하다보면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리라 생

각해요. 저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기고 싶어요. 환자들이요? 제 외과가 범상치 않으니 간혹 어르

신들은 저를 보고는 '원장 나오라 그래!' 하며 호통을 치시기도 해요. 근데 대

부분의 환자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제 음악을 즐겨 틀거든요.

우리 밴드 활동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요.

감사하죠.

**시간이 부족해** 요새는 시간이 무척 아까워요. 매 순간을 얼마나 쪼개고 쪼개

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솔로 정규 음반에 수록될 12곡 중 6곡의 녹

음과 마스터링을 끝냈습니니다. 음반은 올 연말쯤 출시될 거예요. 음악과는 별

개로, 지난겨울부터는 단편영화도 한 편 찍고 있고 뮤지컬 극본도 쓰고 있어

요. 시화집도 구상 중이죠. 지난 1년간 70편 정도 시를 썼는데, 시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이 재미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클래식 작곡에도 도전하

고 싶습니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고요? 그냥 낮에도 잠잠이 구상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특별한 목표 같은 걸 정해놓고 사는 타입은 아니예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라 싶은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

요. 지금처럼 다양한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며 살고 싶어요.

**인생의 키워드** 제 삶의 키워드? 그건 바로 열정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

요. 뭐든 열정이 사라지면 노동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마저 힘들

어지죠. 때론 저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그만큼 힘들 것 같아 마음을 다잡죠.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로 스스

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다지는 것.

이런 제 에너지의 원천은 아내와 딸이에요. 화목한 가정의 에너지가 저를 계

속해서 도전하게 만들죠. 음악 역시 체계는 그런 존재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 매사에 에너지를 쏟게 하는 일. 다른 분들도 자신이 즐겁

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못할 일은 없죠. 열정

과 노력만 있다면요.



### AFTER INTERVIEW

만 5세 때 동요를 작곡했고 대학에서는 합창단을 만들어 지휘자로 활약했다고 한다. 대학교요제 2차 예선과 TV 프로그램 '슈스케1', '뽕밴드' 2차 예선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고. 지금은 밴드 '이빨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이빨쟁이'와 '키스하고 싶을 땐 이빨을 닦아' 같은 곡을 부른다. 이쯤 되면 그를 '괴짜 치과의사' 정도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뮤지션 리안에 대한 엄청난 실례다. 말하자면 그는 프로인 것이다. "처음 음악을 만난 중3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뮤지션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는 '뮤지션'을 택해야 한다면? "뮤지션과 의사 중 한 가지만을 택해야 한다면?" 이라는 다소 유치한 질문에 망설임 없이 "뮤지션"이라고 답했다. "뮤지션을 택하겠다. 나는 의사이기 이전에 뮤지션이니까." 뮤지션 리안이 궁금하다면 그의 음악을 들어볼 것을 권한다. 객실에서 리안으로 듣는다면 더욱 좋겠다. 공연 스케줄은 '조절정 미성 작렬 리안 우주 유일 팬카페(caf.naver.com/leea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HE AUTO



## TOYOTA RAV4

산에서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멋스러운 외관 디자인이 강점인 신형

RAV4에 주목할 것. 공격적 형태의 전후면

팬더, 낮은 후드, 아치형 루프, 그리고 후면

스페어 타이어를 폐기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바뀐 리어 디자인 등은 RAV4의 매력을

배가한다. 안전성에서도 돋보인다.

고강도강(Ultra High Strength Steel)의

차체 구조를 적용, 스티어링과 핸들링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 동급 SUV 최다인

'8 에어백'(5인승)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 AUDI Q7

7인승의 Q7은 넓고 쾌적한 차내 공간을 원하는 캠핑족에게 으뜸.

전장 5089mm, 전폭 1983mm, 전고 1697mm, 축거(軸距, wheelbase) 3002mm로

실내공간과 적재공간이 어떤 SUV보다 넓다. 2열과 3열 뒷좌석을 모두 수평으로 접을

시 최대 2035ℓ의 짐을 실을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실을 경우 트렁크에 위치한 스위치를

가볍게 누르는 것만으로 적재공간의 텍(sil)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하다.



## LAND ROVER DISCOVERY4

디스커버리4의 핵심 가치는 인락하고

정교한 드라이브. 한층 진화한 에어

서스펜션, 가변 스티어링 시스템, 대구경

브레이크와 온-오프로드 주행 특기술인

'전자동 지향반응 시스템' 등이 장착됐다.

랜드로버 특유의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

역시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가 추가된

디스커버리4에서 더 빛을 발한다. 여기에

성능까지. 7인승의 넉넉한 차제임에도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시간은 단 9.3초에

불과하다.



## VOLKSWAGEN TOUAREG

5인승 투어렉은 성능 면에서 단연 강자다. 신형 투어렉은 폭스바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ABS 플러스(anti-lock braking system plus)'를 장착, 자갈이나 모래밭, 모래가

갈려 있는 아스팔트 등에서의 제동거리를 최대 20%까지 단축시킨다. 또한 안전 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끄러운 도로를 비롯한 다양한 노면 상태에서 빠르게

대응하며 쏠림 현상이나 롤링 등 위험한 주행 상황까지 예방한다.

## KIA CarnivalR

대식구가 함께하는 캠핑이라면 미니밴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9인승의 카니발R이

제격이다. 신형 카니발R은 내·외관의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한 것이 특징. 차량 외부에는

17인치 럭셔리 알루미늄 휠을 적용해 품위 있는 측면 이미지를 구현했고, 내부에는

태블릿PC 수납이 가능한 사이드테이블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 좌석에

3점식 시트벨트를 적용하는 등 안전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HYUNDAI MAXCRUZ

국내 SUV 중 가장 덩치가 큰 맥스크루즈. 전장 4915mm, 전폭 1885mm, 전고 1690mm,

축거 2800mm다. 6인승과 7인승 모델로 운영된다. 1, 2열 레그룸이 세단처럼 넓고

안락하다는 게 큰 장점. 실내 3개 구역의 온도를 개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트리클 존 공조

시스템' 등을 적용해 2, 3열의 편의성까지 향상시켰다.



## HYUNDAI GRAND STAREX CAMPING CAR

최근 인기몰이 중인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는 갖가지 편의사항이

적용된 4000만 원대 자가형 캠핑카다.

4인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 트렁크

쪽에 마련된 매트리스를 펼쳐 침대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루프에서도

취침이 가능하다. 싱크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청수공급장치와

전기 사용을 위한 외부 전원공급장치

등도 갖췄다.





# LOOK



◀ 땀 흡수와 배출 기능이 뛰어난 서클렉스 소재의 베스트. 목 부분 탈착이 가능해 갖가지 디자인의 셔츠와 적절히 코디할 수 있다. 13만9000원 네파



▲ 개성 있는 목을 연출할 수 있는 유니크한 패턴과 디자인의 방풍 재킷. 화려한 색상의 전체 프린트에 와펜 장식이 가미된 재킷 19만8000원 블랙야크  
프린트 사선 지퍼 여밈 디자인으로 트렌디한 멋을 강조한 베이지 재킷. 26만 원 코오롱스포츠



▲ 스판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개주얼 데님 팬츠는 등산복은 물론 일상복으로도 손색이 없다. 포켓 블록형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줘 옷맵시를 살린 네비 팬츠. 16만9000원 K2 허벅지 부위의 벤틸레이션 지퍼 디테일과 허리 뒤쪽에 스트레치성 메시 소재를 부착해 기능성을 강화한 블랙 팬츠 18만9000원 말레

제품 문의 네파(02-556-0430), 노스페이스(02-940-1148), 일레(02-306-7033), 블랙야크(02-2027-0800), 코오롱스포츠(1588-7667), K2(1644-7781)

## 자연을 닮은 멋쟁이!

잘 고른 아웃도어 의류 한 벌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멋있을 수 있다. 진짜다.

중년 남성의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지나친 편애는 곧잘 '패션 감각 제로'로 폄하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웃도어 룩 마니아들이 티피오(TPO, time·place·occasion) 운운하는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도리어 자연에 좀 더 가까운 멋쟁이란 칭호를 얻을지도, 산과 바다뿐 아니라 도시의 일상에서 입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아웃도어 의류는 젊고 패셔너블해졌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50대 소비자들의 36%가 아웃도어 의류를 입으면 자신이 4~9세 정도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그럴까.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다. 그저 젊은 감각을 숨길 수 없는 당신의 안목과 취향, 그리고 의지만이 필요할 뿐.



▲ 멜란지 느낌이 나는 베이지색 팬츠. 허리 밴드가 활동성을 높이고 내추럴한 멋을 더한다. 11만9000원. 세 가지 각기 다른 색상을 조합한 코튼 소재 헌팅캡. 3만5000원. 두 제품 모두 네파



▼ 올 시즌 대표적 유행 아이템인 청색 데님 셔츠. 두 가지 색상의 원단 위에 워싱으로 그라데이션을 해 낡은 듯 멋스러운 느낌을 살린 것이 포인트다. 13만9000원 네파  
은색 보냉병은 노스페이스



▲ 앞면에 지퍼 포켓의 사선 디테일이 가미된 짙은 골드 색상의 방수 재킷. 과감한 컬러만 잘 활용해도 한층 젊어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후드는 탈착이 가능하다. 99만 원 네파



▶ 루어피싱에 사용되는 각종 릴과 미노우, 태클박스 등을 그래픽 프린트로 개성 있게 표현한 초경량 재킷. 17만8000원. 슬림한 핏의 카키색 카고 포켓 팬츠. 면 스판 소재로 신축성과 활동성이 뛰어나다. 9만5000원. 두 제품 모두 노스페이스 주황색 끈으로 포인트를 준 초경량 워킹화는 19만9000원 K2



▲ 어떤 아웃도어 아이템과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베이식 디자인의 팬츠. 허든 포켓으로 포인트를 준 카키, 베이지 색상의 팬츠는 허릿단에 내장된 버클 벨트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테크니컬한 절개 라인으로 활동적인 느낌을 강화한 블랙 팬츠는 밀워·영당이·허벅지·밑단의 둘레가 몸에 밀착되는, 격렬한 활동에 적합한 익스트림 핏으로 디자인됐다. 세 제품 모두 16만5000원 코오롱스포츠



▲ 번덕스러운 봄 날씨에 활용도가 높은 바람막이. 패턴이 화려할수록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한다. 검정과 네이비의 컬러풀한 배색이 조화를 이룬 방풍 재킷. 7만 원 노스페이스 화려한 그래픽 패턴에 웬딩 포켓 디테일이 인상적인 흰색 방풍 재킷. 18만9000원 말레



◀ 환절기에 유용한 우븐 재킷. 앞면의 커리색 케미컬 프린트와 소매 및 허단의 남색 엘보 패턴이 멋스럽다. 19만9000원 K2



# THIS CAR

## K9과 떠나는 예술건축 기행 ①

# 직선의 단순함으로 완성한 조형미와 그 안에 담긴 창조성을 찾아서

사람을 중심에 둔 ‘예술’이라는 점에서 자동차는 종종 건축물과 비견된다. 디자인과 기능, 어느 것 하나 미흡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면이 서로 닮았다.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세단 K9은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예술건축을 찾아 나선다. 그 첫 번째 행선지는 파주에 위치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 조형미로 이름을 떨친 이곳은 한 단계 더 진화한 K9의 진면목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

‘건축의 시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는 말했다. “건축물은 발레리나가 무대에 등장하듯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훌륭한 건축물이란 자신의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시자의 국내 미술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바로 이 같은 신념 위에 탄생했다. 그는 다양한 크기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담아낸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데, 건물의 재료는 콘크리트와 돌, 흰색 페인트 등 지극히 단순하고 흔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들로 조합한 공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미니멀한 것을 활용해 하나의 거대한 결정체를 완성하는 시자의 건축 철학은 K9의 스타일링을 진두지휘한 기아차의 디자인 수장 피터 슈라이어의 감성과 맞닿아 있다. 단순함이 최고의 정밀함이라는 신념에 따라 디자인을 이루는 선과 면의 조화를 명료하게 정리한 것. 단순함과 아름다움, 이것이 K9의 화법이다.

### 기존 세단과는 차별화된 역동성과 세련미

뛰어난 건축물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선(線)’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가만히 살펴보자. 연상되는 동물이 있나? 그것은 다름 아닌 고양이. 뮤지엄 구상 초기, 시자는 조그마한 대지 모형을 받아들고 그 위에 한 마리의 고양이를 그리는 것으로 설계를 시작했다고 한다. 몸을 둥글게 웅크렸다 이내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는 고양이는 아니었을까. 그 후로 시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그렸고, 그것으로부터 백색의 매혹적인 건축물은 태어났다. 마치 고양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듯 서로 다른 높이의 직선과 곡선이 만들어낸 선의 미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 웅장하고 신비로운 작품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던 순간이다. 시자의 작품 앞에 선 K9은 어떤가. 전장 5090mm, 전폭 1900mm, 전고 1490mm의 맵시 있는 차체와 어우러진 범퍼와 후드 디자인은 가히 인상적이다. 후드에서 앞범퍼 하단까지 하나의 면으로 연결되는 ‘원스킨 스타일’로 매끈한 라인을 살린 것. 펜더 가니쉬에서 뒷문까지 연결되는 간결한 사이드 라인도 직선의 시크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차량 전면부의 대형 패밀리룩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가 장착된 안개등 등이 만들어내는 입체감 있는 형태미는 기존 대형 세단과는 차별화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고양이라 한다면, K9은 표범이나 지타에 비하면 좋을 것이다.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실내 디자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인테리어는 고급 소재와 감성 조명을 도입한 것이 특징. 크래쉬패드나 센터페시아 가니쉬 등 주요부를 천연가죽으로 감싸고, 콘솔이나 암레스트의 우드 패넌을 유광으로 코팅해 품격 있는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실내 공간 곳곳에 적용된 다양한 감성조명도 K9만의 빛의 철학을 구현하는 요소다. 크래쉬패드에는 좌우대칭형 간접조명을 활용, 마치 크래쉬패드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냈으며 도어트림에는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조명인 도어 커티쉬 램프를 탑재

했다. 이는 공간과 빛의 조화를 늘 염두에 둔 시자의 작업과도 흡사하다. 그는 빛의 밝기를 활용해 공간의 미적인 비주얼을 증진시켰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 따뜻한 봄볕 아래 조금씩 경쾌한 표정을 드러내듯 K9 역시 빛을 통해 한층 밝은 색채를 뽐어낸다.

###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예술품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비롯한 시자 건축물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첨단기술이 만나 인간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점이다. 최고의 기술력 또한 뛰어난 공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K9의 매력 역시 단지 세련된 디자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자동차 안에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첨단의 신기술이 집약돼 있다. 외형적 화려함 이상으로 공간 내 사람을 배려했던 시자의 장인 정신을 K9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만 같다. 차량 전면 유리에 다양한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 트림에 적용됐는가 하면 차량 외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차량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주행 중 차량 후측방 사각지대와 후방 장애물을 사전 감지해 대응하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을 갖췄다. 성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람다 V6 3.8 GDi 기술린 엔진을 장착해 강력한 동력 성능과 탁월한 연비 효율성을 확보했다.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을 통해 고속 주행 시에

는 차고 하향으로 차체 안정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연비를 개선하고, 험로 주행 시에는 차고 상향으로 지면과의 충격을 방지해 K9 특유의 주행 감성을 구현했다. 이 같은 K9은 오너드리브키는 물론, 쇼퍼드리브카(운전 기사를 두고 타는 차)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쇼퍼드리브카가 편안한 승차감과 안전성, 뒷좌석의 편의장치에 비중을 둔다면 오너드리브카는 동력과 연비 등 자동차의 기본 성능을 중시하는 편이다. 그러나 K9은 디자인과 기능을 절묘하게 결합해 이 둘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것이 K9이 이룬 혁신이다. 건축 장인 시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그가 믿는 진정한 창조이자 혁신이기 때문일까. 분명한 것은 K9의 지향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 그것이 바로 K9이다.

파주 헤이리 출판단지 내에 위치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출판사 ‘열린책들’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만 레이, 앤디 워홀, 장 자크 샹페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저서를 발간한 열린책들의 예술 서적 전문 출판사인 ‘미메시스’에서 이름을 땄다. 사진가 김중만, 조각가 박찬용 등의 작품을 전시했던 이곳은 전시물은 물론, 주변 경관과 하나가 된 건축물 자체로 여러 예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건축전문가 100인이 뽑은 한국 현대건축 Best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에서 일산·문산 방향으로 자유로를 탄 후 파주출판도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곧 바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31-955-4100



촬영 모델 K9 3.8, RVP 사양



# INDUSTRY

## 왜 그들은 AARP에 열광하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은퇴자 커뮤니티 AARP.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회 곳곳의 변화를 주도하는 AARP는 시니어 관련 사업에 뛰어들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들여다보자.



올해 초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를 맞아 AARP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이미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AARP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는 3대 로비단체가 있다.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전미총기협회(NRA), 미국은퇴자협회로 알려진 AARP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 중 AARP는 조직규모나 로비자금 면에서 미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AARP의 회원 수는 무려 3800만 명. 이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약 20%로, 정치권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정치권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 발의 또는 변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AARP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AARP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권익 보호는 물론,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인구 고령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AARP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령자 대상의 커뮤니티 운영 방식, 기업과의 사업 제휴 모델,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한 시니어 미디어 사업,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순환하며 상·하반기로 개최하는 시니어 박람회 사업 등은 비영리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채롭다.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이상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로 AARP를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ARP 본부 건물 모습. 워싱턴DC에 자리 잡고 있다.



AARP 주최의 정책 세미나 현장.

### 실질적인 가능성을 위한 동반자

1958년에 설립된 AARP는 국내에서는 아직 편의상 '미국은퇴자협회'라고 부르지만, 정작 AARP는 몇 년 전부터 모든 공식 문서에 협회의 전체 명칭(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이 아니라 약칭(AARP)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협회 가입 대상을 은퇴자로 한정하지 않으며, 중·고령자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AARP의 의지가 담겨 있다.

AARP 국제부 브래들리 셔먼 수석 고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시니어의 은퇴 여부와는 관계없이 50세 이상이 되는 이들을 위해 열려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AARP가 그 활동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히기 위해 '미국의 은퇴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인다. AARP는 2013년 들어 AARP에 대한 이 같은 변화를 홍보 활동에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가능성을 위한 동반자(An Ally for Real Possibilities)'라는 세 슬로건에서 AARP 단어의 새로운 뜻을 확인할 수 있다.

AARP 조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중심이 되는 비영리 조직 'AARP협회'와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영리법인 'ASI(AARP Services Incorporated)', 그리고 자선사업을 하는 'AARP재단'이 그것. AARP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AARP 전체 조직의 심장 역할을 한다. 위 3개 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ASI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은 협회로 귀속되며, 이렇게 모인 자금은 다시 자선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회원들이 낸 협회비와 후원금, 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등을 통해 매년 모이는 돈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AARP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AARP'를 표방하는 많은 단체가 탄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AARP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AARP의 영향력은 단순한 고령자 커뮤니티 결성에 대한 결과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ARP협회 조직은 약 40개의 세부조직으로 나뉘어 매우 세밀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으며 또 각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국 고령자들의 이익은 정치권과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AARP의 활동을 통해 지켜지고 있으며, AARP의 공공정책연구소(PPI, Public Policy Institute)가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PPI는 미국 행정부

### 미국을 넘어 전세계 고령화 이슈에 대응

고령화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AARP는 전 세계 고령화 이슈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중이다. 작년부터 AARP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뉴욕을 포함한 6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도 작년부터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해당 인증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사업에서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셔먼 수석 고문은 "우리는 아시아에 미국인 인구 증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이민 1세대 대부분이 현업에서 은퇴한 시니어가 되었으며 이들은 AARP에게 매우 소중한 가망 회원이자 자산"이라고 말한다. 실제 AARP는 지난해부터 아시아에 미국인을 전담해 대응하는 부서를 설립, AARP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AARP의 정책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시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 한경혜 교수는 "AARP의 활동은 국내 학계는 물론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인구 고령화 이슈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과다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AARP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바로 산업 성장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AARP의 설립자 에델 퍼시 앤드루스를 상징한 조형물이 본사 내부 곳곳에 세워져 있다.

## 16달러로 1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

AARP는 전 세계 은퇴자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인구의 약 12%, 유권자 규모로는 20%가 AARP의 회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3.1%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AARP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이 많은 사람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는 데 있다.

AARP에 가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50세 이상이면 수수료에 16달러(1년 연회비)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누리는 혜택은 그 이상이다. 최대 3%에서 1%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의 포인트 적립, 호텔과 리조트 등 여행 관련 서비스 할인, 쇼핑물과 레스토랑 등 생활 서비스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문가 재무 상담 무료 제공, 일자리 상담, 은퇴 설계 등 부가적인 혜택도 있다. 이 밖에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잡지나 회보 등의 출판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AARP와 제휴 계약을 맺은 보험사나 금융사의 은퇴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AARP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들의 권리를 AARP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엇보다 크며,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여준다. AARP는 은퇴자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답게 은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은퇴자의 이익에 반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에 압력을 가한다. 백악관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AARP 건물의 위치가 이러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ARP는 또 은퇴자들의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과 여러 형태의 제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휴 서비스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별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회원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때, 그 회원은 기업이나 AARP에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은 3800만 명의 고객을 잃고 싶지 않다면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소비자 집단으로서 획득한 기업 대상의 강한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FINANCE

## 내 자산관리 점수는?

은퇴를 앞둔 당신의 뇌 구조에서 '재테크'는 제법 큰 자리를 점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면 보다 풍요로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예·적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주식·채권 같은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인지 늘 아리송하다.

이럴 때는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은퇴 준비가 한결 쉬워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0대의 노후 준비율은 약 4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 직장인 김보통(41) 씨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월급을 발판으로 나름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 김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품품(41) 씨 역시 마찬가지다. 이 씨는 도래에 비해 많은 자산을 확보한 편이지만 하지만 자신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런 두 사람은 얼마 전부터 부쩍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언제 은퇴를 하게 될 것인지, 여명 기간은 얼마나 길 것인지, 또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등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

하는 부분이다. 김 씨와 이 씨의 현재 재무성적과 노후설계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활용한 것은 KB국민은행의 자산관리 브랜드 '스타테이블'. 스타테이블은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매니저를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집단의 시장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시스템이다. 개인의 금융 자산 현황을 분석·평가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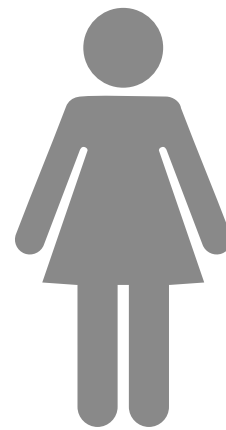
### TIP

#### 이정걸 팀장이 말하는 은퇴 전 자산관리 포인트

**1** 주기적인 재무 진단 건강검진처럼 일년에 한 번 주기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시점에 필요한 자금 대비 현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적절한 방향을 수립한다. 부족 자금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방법을 강구할 수도, 각종 변수에 따라 투자 방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 재무계획이라는 것은 늘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자녀의 유학자금이 늘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야 은퇴 준비 자금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법.

**2** 자산만의 포트폴리오 현 상황에서 저금리는 피할 수 없는 요건이다. 그러므로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답을 찾기가 힘들다. 이에 대처할 만한 자산만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주식, 채권, 추가연계증권(ELS) 등 전체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것.

**3** 제3의 대안 누구나 아름다운 은퇴를 꿈꾸지만 100%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100%라는 건 없다. 그러므로 부족한 자금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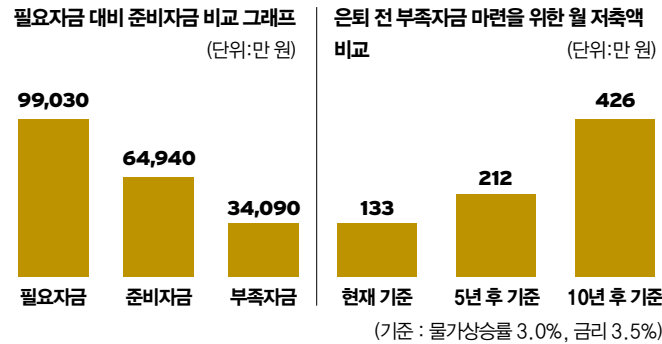
#### PROFILE

이름 이품품  
나이 41세 직업 회사원  
수입 월 500만 원  
보유 자산 총 6억9000만 원  
(금융자산 2억9000만 원, 부동산 4억 원)  
은퇴 희망 시기 57세  
세대 수명 82세  
은퇴 후 생활 수준 210만 원  
노후 준비 자금 6억 4940만 원

이품품의 노후 준비 현황	
노후 필요자금(A)	9억9030만 원 (210만 원X25년X12개월)+현금의 미래 가치
노후 준비자금(B)	6억4940만 원(연금+기타자산)
부족자금(B-A)	-3억4090만 원

❖ 필요자금, 준비자금 및 부족자금 등은 모두 '현금의 미래가치'를 포함해 계산한 것. 은퇴 시점 기준 물가상승률 3.0%, 투자 시 금리 3.5%를 적용한 값이다.

❖ 현재 준비 자금으로 이품품 씨는 은퇴 후 25년간 월 138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 (현금의 미래가치가 포함된 산출 값). 애초 이 씨가 목표한 210만 원과 비교하면 72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꾸준한 저축으로 메울 수 있다.



#### POINT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핵심 방안

1. 꾸준한 저축
2. 금리 경쟁력 있는 상품 선택 등 자산관리 효율화
3. 거주 주택의 활용
4. 은퇴 시기의 연장
5. 노후 생활비 등 지출 축소

#### 김보통의 금융자산 현황

자산구분		현재 자산배분		제안 포트폴리오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성	유동성	17	0%	17	0%
	예적금	0	0%	2,289	22%
	연금보험	274	3%	1,255	12%
	신탁 등	8,505	83%	1,505	15%
주식형	국내	1,457	14%	1,702	17%
	해외선진	0	0%	0	0%
	해외이머징	0	0%	1,947	19%
채권형	국내	0	0%	0	0%
	해외	0	0%	1,538	15%
대안 투자형		0	0%	0	0%
		10,253	100%	10,253	100%

❖ 김보통 씨의 금융자산은 지나치게 현금성에 치우쳐 있다.

특히 신탁 등은 83%의 비중을 점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기대수익률이 5.5% (변동성 3.8%)에 불과하다. 기대수익률을 9%(변동성 9.1%)대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체 자산 및 현금성 자산의 투자 비중을 수정하고 주식형 자산을 늘려야 한다(제안 포트폴리오 참고).

#### PROFILE

이름 김보통  
나이 41세 직업 회사원  
수입 월 500만 원  
보유 자산 총 5억여 원  
(금융자산 1억여 원, 부동산 4억여 원)  
투자 성향 위험중립형(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

## 한국 시니어들에게 손짓하는 AARP

AARP는 최근 들어 아시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재미교포가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올해 AARP는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과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 2, 3 고령자를 위한 권익 보호는 물론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앞장서는 AARP 회원들. 4 지난해 열린 '서울 국제시니어엑스포'에 글로벌 파트너사로 참여한 AARP의 부스. 5 한국인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AARP 멤버십 혜택 안내서.

AARP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의 글로벌 파트너사로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 올해에는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과 손을 잡고 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 ㈜시니어파트너즈는 AARP와 한국 시니어 시장 진출 및 양자 교류를 위한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은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통된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양사는 밝혔다. AARP와 ㈜시니어파트너즈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내에서 다양 한 공동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 친화 기업 국제 대상(Best Employers for Workers over 50 Award -International)'을 한국에서 진행한다.

'고령 근로자 친화 기업 대상'은 고령자 권익 향상을 위해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각기업의 고용 및 복지 수준을 심사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인증 사업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주요 심사 항목은 직장 내 고령자에 대한 고용률, 작업 환경, 평생학습 기회,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 근무 유연성 등이 있다. 대표적인 국제부문 수상 기업으로는 독일의 BMW 그룹과 일본의 다이킨 인터스트리즈(Daikin Industries), 영국의 막스앤스펜서(Marks and Spencer plc), 브리티시텔레콤(BT) 등이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 기업은 선정된 바 없다. ㈜시니어파트너즈는 앞으로 AARP'고령 근로자 친화 기업 국제 대상'의 한국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 대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서류 접수 및 문의 업무에 대응하며 고령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 밖에 공동 세미나 및 리포트 발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시니어 시장 및 소비자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를 통해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령화 이슈에 함께 대응하며, 시니어의 사회 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AARP 회원 대상 멤버십 서비스의 한국 시장 확장 업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AARP의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 한국의 시니어 전문가들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 대표회장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일순 명예교수는 "미국은 우리보다 고령화 및 관련 산업화가 20년가량 앞서 있는 나라이고, AARP는 민간기관으로서 순수하게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기관이다. AARP와의 제휴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니어를 위한 활동, 사업 그리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박영란 교수는 "AARP는 1950년대부터 축적된 시니어 커뮤니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니어 산업과 관련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사업 제휴는 한국 시니어에게는 선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시니어 포털 유어스테이지 회원과 미국 AARP 회원들 간에도 의미 있는 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ARP International Affairs

#### AARP 국제부 브래들리 셔먼 수석 고문 고령자 친화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인구 고령화의 해답



**Q** 고령 근로자 친화 기업 대상(Best Employers for Workers over 50 Award)에 대해 소개해달라.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AARP는 고령자 친화적인 인사제도와 복지정책의 확산을 위해 2001년 미국에서 고령 근로자 친화 기업 대상을 시작했다. 매년 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상상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Q**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경우도 있는가? 아쉽지만 아직 없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선정됐다. 일본의 다이킨 인터스트리즈(Daikin Industries), 싱가포르의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과 래플즈 인스티튜트(Raffles Institution), 말레이시아의 Lam Soon Edible Oils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올해 심사부터는 ㈜시니어파트너즈가 한국의 단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한국 기업을 위한 지원 활동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수상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본다.

**Q** 접수 및 심사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AARP에서 준비한 구비서류 요건에 따라 서류를 접수받는다. 서류심사는 AARP 및 각국의 수행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자세한 심사 항목은 오는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Q**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오는 6월 AARP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및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류 접수는 6월부터이며, 심사를 통해 2014년 4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시니어파트너즈 02-3218-6248 www.yourstage.com



# MONEY

## 수익형 부동산 투자 현명하게 하자!

은퇴 후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수익만 한 효자가 있을까.

바로 수익형 부동산 얘기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에 공급 과잉 현상까지 겹치면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떻게 투자하는 게 현명할까.

‘부동산 불패신화’가 굳건했던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수익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아파트를 사서 묵혀두기만 하면 값이 오르는 시기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혹자는 말했다. 흙먼을 칠 수 있는 데 굳이 안타를 여러 번 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부동산 시장이 다운사이클로 접어들며 부동산 불패신화에는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중소형 빌딩을 통째로 혹은 한 층, 한 실씩 구매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의 형태가 바뀌어갔다. 리스크 관리에 훨씬 용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2010년 말을 즈음해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다소 떨어졌지만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만은 여전히 인기다. 최근 각광받는 수익형 부동산은 4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다. 이들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

**1 오피스텔(원룸)**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매우 유망한 투자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이 초과된 상태. 초창기에는 연 8~9% 이상의 높은 임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균 5%대로 떨어졌다. 때문에 무엇보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게 관건이다. 서울 시내 역세권에 위치한 빌딩이 최선의 투자처. 이곳을 벗어나면 수요층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부동산을 다시 현금화할 때도 곤란을 겪기 마련. 원천 데 맞춘 가격으로 땅값까지 떨어진다면 더욱 난감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금화가 유연한 서울 도심 속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내 역세권이 아니라면 근처 업무지구가 형성된 곳, 즉 수요가 확보된 곳으로 정해야 한다.

**2 상가형 주택** 상가형 주택의 한 층, 혹은 한 실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그만큼 믿을 만한 업체이므로 임대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형성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속 빌딩은 위험하다. 임대수익과 직결된 시장조사가 불가능한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대형상가에 큰 기대를 걸기도 한다. 대형상가의 경우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함에 따라 임대수익과 함께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러나 대형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시내 중심지의 업무지구에 위치한 대형상가에도 공실이 허다한 상황.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요사이 상가형 주택의 수익률은 5%대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3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인 임대주택은 최근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처. 과거 외국인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한미군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됐던 데 비해 지금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그 수요 폭이 훨씬 넓어졌다. 하루 기준 숙박료를 100달러(약 17만)로 계산했을 때, 한 달이면 340만 원가량을 손에 짚 수 있다. 보통은 외국인이 몰리는 한남동 등지에 2층짜리 단독주택(방 3~5개)을 임대해 운영하는데, 홍보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하고도 일반 수익형 부동산보다 많은 수익을 남긴다. 그러나 외국인 임대주택은 데일리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속적인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 국제 정세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최근 비즈니스 호텔의 공급이 초고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술술 새어나오고 있는 상태. 마냥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직접 거주하는 집의 1~2개 방을 개조해 운영하는 것. 당장 사업적으로 크게 일을 벌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4 비즈니스 호텔**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수익(숙박비)을 얻는 호텔 투자다. 이는 위탁업체가 임대와 관리 업무를 100% 총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위탁업체의 신뢰도가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에 하나 위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투자자에게 관리통제권이 없는 탓이다. 또, 하나의 객실을 2~3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등기문제로 다소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 매각 등의 과정에서 애를 먹기 쉽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호텔이나 레지던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방식을 매우 위험하게 여기기도 한다. 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 6~7%대로 다소 높은 편이다.

**Tip**  
김용남 대표가 말하는 투자의 기본

☞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유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불어 닥칠 각종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 자신의 능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 투자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것. ☞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라  
매매 전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중개사는 수수료 때문에 석연치 않은 계약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수익률은 좋는데 매물가가 낮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것은 단지 매매를 위한 손쉬운 전략일 뿐. 반드시 ‘실사(임대료 시세 조사 등)’를 해봐야 한다. 주위를 꼼꼼히 둘러보라.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계약해서는 안 된다.

☞ 소유권 관계를 꼼꼼히 체크하라  
서류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을 만나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 자산관리에 신경 써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투자 자체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다. 그 구성물에 따라 빌딩의 가치는 달라진다. 가령, 법인 등을 임차인으로 들이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이후 보다 높은 값에 매각할 수도 있다.

☞ 방향성까지 말라  
누구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게 부동산 투자다. 서브프라임 때에도 미국의 부동산 전문가 60~70%가 헛다리를 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나 때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투자 포인트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투자의 팁을 찾는다면?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수직중축 하용에 주목!  
수직중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령 10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해보자. 그 위로 2~3개 층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2~3개 층을 추가로 지어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비를 통해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자출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18평, 20평 아파트는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탈바꿈해 실용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물론, 리모델링은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직중축이 허용되면 수혜자는 단연 일산, 분당, 평촌 등의 1기 신도시다. 실제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핫스팟으로 떠올랐다. 대책 발표 전보다 낙찰률, 경쟁률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후문이다.

gettyimages/multibis

# BULLETIN



Travel

전세기 타고 나트랑으로 Go Go!

올해 휴가는 어디로? 그저 그런 휴양지에 질렸다면 베트남의 나트랑을 추천한다. 안정적인 기후와 깨끗한 해변, 그리고 고급 리조트가 즐비한 이곳은 일찍부터 유러피언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안 휴양지. 마침 오는 5월 2일부터 한진관광에서는 나트랑 직항 전세기를 운항한다. 인천에서 5시간20분 현지에 도착. 여느 봄바는 동남아 휴양지와 달리 단독 전세기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한진관광 전세기를 이용하면, 동남아시아 최대 대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빈펄리조트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한진관광은 새로운 곳으로의 떠나기를 원하는 부부들을 위한 상품도 판매 중이니 참고할 것. 이쯤에 나트랑으로 리마인드 해니문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1566-1155(하니문 02-726-5535)

## Education

북경대학교 韓·中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중국 기업인과 교류를 원하는 열혈 사업가들은 주목! 중국의 현황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업계 담당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오는 7월 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북경대학교 韓·中 미래전략 경영자과정 2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는 북경대 경영전문대학원인 HSBC 비즈니스 스쿨이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고려대 기술지주 자회사 케이유네트웍스주와 조선에듀케이션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이수자에게는 북경대 발급 수료증이 주어진다. 2기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중국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국인들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본 과정 참가대상은 중국으로의 진출이나 중국 기업인과 교류를 원하는 기업인 및 실무자 등이며 국내 모집 인원은 30여 명이다. 참가비는 350만원, 참가자 모집은 6월 12일까지. 문의 1599-3260

## Utensil

사랑받는 남편이고 싶다면?

5월은 가정의 달. 사랑받는 남편이고 싶다면 주방과 친해졌. 프랑스 명품 주방 브랜드 스타우브에서는 5월 3일부터 열흘간 '가족 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중 스타우브 매장에 방문하면 '불맛이 나들이에 어울리는 추천 레시피' 인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중 인기 요리로 선정된 메뉴에 투표한 이들을 초청, 푸진한 선물을 증정한다. 다양한 레시피도 얻고, 스타우브 제품도 경험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문의 02-2192-9643

독창적 美가 갖는 구두

벨루티의 오랜 팬들은 자신들의 스타일 '영혼을 지닌 구두'라 칭한다. 견고한 팬심으로 빛나는 프랑스 수제화 브랜드 벨루티가 새로운 구두를 선보였다. 그 주인공은 '자란루카 태슬 로퍼'. 비스포크(맞춤구두)의 기술력이 갖는 이 기성화는 가족을 재단할 때 만들어지는 이름새를 구두 뒷부분에 숨기는 대신 오히려 구두 전면에 과감하게 드러내는 획기적인 재단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벨루티만의 차별화된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문의 02-3446-1895

Fashion



김환기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展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학 김환기(1913~1974)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환기미술관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전을 기획했다. 한국적 사정주의를 바탕으로 독창적 예술 세계를 정립한 김환기는 한국은 물론 일본, 파리, 뉴욕에까지 그 이름을 알린 인물. 이번 특별전의 전시구성은 크게 동경·서울시대, 파리시대, 뉴욕시대로 나눠 초기작에서 말년의 대항 전면 점화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외에 사진과 판지그림, 기사, 드로잉, 비평문 그리고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함께 이끌어온 여러 화가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전시해 김환기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한편, 환기미술관은 100주년 기념으로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전시도 함께 펼친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시기별 작품과 다양한 전문 정보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6월 9일까지. 문의 02-391-7701



매화와 향아리(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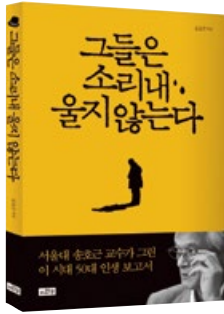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한국의 대표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50대 인생 보고서. 경험, 가치관, 가족 책임, 행동 양식, 사고방식 등 다른 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만의 독특한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했다. 1955~1963년에 태어난 전국 약 715만 명의 베이비부머들 중 10여 명을 만났다. 자서는 이들 베이비부머들의 사연 속에 잠재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솔직하게 풀어낸다. 또래라면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송호근 저, 이와유.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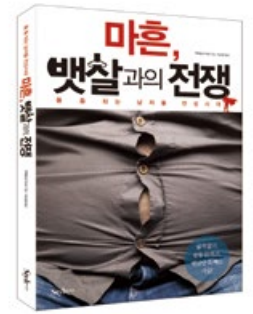
〈오십의 발견〉

공자는 선이 되어야 하늘의 명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갖은 인생사를 견뎌낸 후 비로소 진지하게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나이 한. 이 책은 이제 막 선이 된 자자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며 쓴 에세이다. 서울 마을에서 소를 먹고 나무를 타며 보낸 어린 시절부터 어찌지 아픈 몸과 장차 다가올 죽음을 걱정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을 만날 수 있다. 이광수 저, 민음사



〈마흔, 뱃살과의 전쟁〉

중년의 남자에게 뱃살이란 출퇴근만큼이나 익숙한 것. 하지만 언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오랜 시간 다이어트에 몰두한 자는 운동을 하지 않고도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바른 자세와 배를 수축하는 것만으로 효과 만점인 '드로인(draw in) 뱃살운동'이 그것.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뱃살 빼기 프로젝트인 드로인 뱃살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자세히 가르쳐준다. 우에모리 미오 저, 조선북스.





ULTIMATE DISCRETION



PIAGET ALTIPLANO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시계  
화이트 골드 케이스, 두께 5.25mm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무브먼트  
피아제 매뉴팩처 칼리버, 두께 2.35mm

PIAGET

[www.piaget.kr](http://www.piaget.kr)



Boutiques : 서울 / 에비뉴엘 02-778-2300 · 갤러리아 EAST 02-540-2297 · 현대 무역센터 02-3467-8924 · 현대 압구정본점 02-3449-5934  
부산 / 신세계 센텀 051-745-1252